

경이로운 사각

맹지영 (전시기획자)

독일 뒤셀도르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샌정의 개인전 《경이로운 사각》은 20년 넘게 작품 세계를 만들어 온 작가의 작업 중 2020년부터 2023년 까지의 회화 40 여점을 중심으로 작가가 그림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가 미세하지만 어떻게 크게 변화를 거치고 있는지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질을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절제된 색과 형식의 회화적 언어로 더듬어 가고 있는 작가는 지난 몇 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크고 작은 규모의 개인전을 열며 자신의 사유의 여정을 풀어왔다. Very Art, touching stardust, temporality, Solitude, After Beauty와 같은 제목의 전시는 회화를 대하는 작가의 태도를 드러내며, 막막하고 고독한 시간을 겪어내야 하지만 가능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담은 낭만적인 감수성을 담아 왔다.

샌정이 그간 풀어낸 그림 속 이미지들은 회색 톤의 색과 절제된 붓 터치와 선과 형상으로 화면을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하는데, 마치 대부분의 그림이 일종의 연작과 같은 비슷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어쩌면 그의 모든 작품 제목이 “무제 Untitled”로 지어진 것은 결국 하나의 연작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운명일지도 모른다. 독일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조용하고 단조로운 일상은 오히려 마음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움직임이 온전하게 응시할 수 있는 작가의 시간을 가능하도록 했다. 샌정을 둘러싸고 있는 안팎의 풍경은 그의 그림에서 독일의 햇빛 하늘이 되기도 하고 먹이 스며든 한국의 수묵화가 되기도 한다. 매 순간 달라지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명암은 그림 안에서 사라지고 드러나면서 작가 특유의 대기감(atmosphere)을 형성하며 고유한 이미지의 서사를 만든다.

현재까지 작가는 변함없이 화가의 태도로 질문을 던지고, 모호하지만 그것의 실체를 그림을 통해 찾아가기 때문에 지난 4년여 간의 작업을 연도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또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과 색, 그리고 화면 전반을 아우르는 회색 톤의 정서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하루나 1년 혹은 길게는 3-4년 사이의 변화는 작가 외에는 크게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을 되짚어 보려는 데에는 막연하게만 보였던 그림에서 조금씩 작가가 바라보고자 하는 세계에 대한 단서를 드러내는 빈도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다양한 농담과 굵기의 선들이 다른 속도로 모이고 흩어지고 뭉치고 풀어지며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다가도 때로는 절제된 색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크고 작은 면이 되기도 한다.

색을 가진 영역은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색조의 분위기 안에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마치 분명하게 자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곧 사라져버릴 것처럼 되도록 확실하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었다.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만들어진 리듬은 단순한 형태지만 그 형상들이 중심이 되어 화면을 주도해 오고 있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부각되던 화면 안 색의 집합이나 그들이 만들어 내는 형태들은 차츰 배경과 거리를 좁혀나가고 있었다. 그림에서 조형적 중심이 되는 형상이나 색은 여전히 부유하며 화면을 주도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배경에서 분리되어 먼저 앞서거나 뒤처짐이 없이 배경과 같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가 먼저 화면에 떠오르며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비슷한 속도로 맞춰지면서 그림에 슬쩍 무게를 입혀 나간다.

화면 안에 들어오는 선, 면, 형상과 절제된 색은 여전히 익숙한 모양과 구성을 띄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드러나지 않는 정체모를 무게감을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샌정의 최근 유화 작업에서 느껴지는 ‘무게감’은 마치 수분을 머금은 종이의 묵직함과 같으면서도 결코 경쾌하고 가벼운 리듬을 잃지 않는다. 그의 그림에서 목격되는 이런 변화는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변주되더라도 이제는 한 몸이 가깝게 움직여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작가가 보고자 하는 세계가 자신 안에서는 조금씩 선명해지고 구체화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림 안에서는 점점 더 간단한 언어와 제스처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객에게는 오히려 이해할 수 있는 단서들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종이에 연필과 오일파스텔 혹은 수채화로 그린 작은 크기의 드로잉들에서는 샌정이 보고자 했던 세계의 이미지를 단축된 시간 안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가 도달하고자 한 지점을 먼저 공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가야할 방향에 대해 이리저리 고민하다 보면 막연하게 표류하던 생각들은 종이 위에 착색되어 길잡이가 되어 준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보다 때로는 바라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하는 작가에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드로잉의 호흡은 또 다른 긴장과 자극을 주며 작업의 시간을 이끌었을 것이다. 질문의 실체를 찾아 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형상과 제스처는 항시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자 작가인 그가 매 순간에 내린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은 그런 움직이는 생각들이 머물렀던 자리의 흔적이자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직관적으로 담아낸 현재의 상태이기도 하다. 비록 결정의 순간들이 찰나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 순간은 축적되어 온 함축된 시간이기도 하다.

작가는 단조로운 일상 안에서 긴 시간 동안 빈 화면을 마주하며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를 그림으로 이해해 나간다. 한정된 사각의 틀 안에서 붓질로 만들어 내는 이미지는 응축되어 있는 사건의 집합이자 상징으로서 화면을 하나의 우주로 작동시킨다. 농담이나 붓질의 변화, 색이나 면의 분할과 같은 조형적인 변주는 등장과 퇴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작가의 치열한 고민의 과정을 그 안에 잠시 담아둔 것일 뿐이다. 때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는 그림 안의 그 흔적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순간들이다. 작가는 그림의 표면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미 품고 있으나 아직 드러나지 않고,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경이로운 세계를 오늘도 찾아가고 있다.